

통합특별법 2월 통과…전남광주특별시장·교육감 선출

6·3지선…현직, 직위 유지하고 입후보 가능 에너지·AI·반도체·농어업 등 지원 특례 반영 군 공항 이전 지원…공공기관 우선 배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위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오는 6월3일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밟아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종전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시도의회 의원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통합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종전의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법 시행 전에 광주시장·전남지사, 시도 교육감이 행한 인허가, 조례, 규칙, 법령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6월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출되는 특별 시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통합교육청 부교육감의 수는 3명으로 하되,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교육감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특별 시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직원은 종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여순사건, 5·18 등에 관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기, 영재학교 특목고, 공립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관한 이 통합교육감에 부여됐다.

다만, 그동안 지역 교육단체가 요구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선제, 교육의회 구성 등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에는 에너지, 인공지능, 반도체, 농어업 등 산업 지원 특례와 군공항 이전 지

원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에너지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 인허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공유수면 사용, 영농형 태양광 보조,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권한을 특별시장에 부여했다.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육성을 위해 AI집적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경쟁력 회복을 국가책무로 명시하고, 산업전환특구 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문화·관광 인프라 국가 지원, 인구감소

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 특례를 법안에 담았다.

농어업·해양수산 육성을 위해 농업진흥 지역 지정, 스마트농업·푸드테크 산업 육성, 첨단농식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농촌활력특구 지정, 수산·해양레저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관련 이전 사업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행정·재정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신설 및 이전 시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게 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예산권·견제 기능 확대…행정통합 일부 합의안 도출

광주·전남 시도의회 추진기획단에 전달 인사청문회 의무화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예산권 독립·견제·감시 기능을 대폭 확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일부 합의안을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

1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일부 합의안을 도출했다.

시·도의회는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 자치권 확보,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합의안에는 의회 예산 편성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예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최근 예산권 독립과 견제·감시 기능을 대폭 확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일부 합의안을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 사진은 시·도의원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

감액 시 사전 통보도 규정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감시에 대한 기능도 강화했다.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승인·허가·인가 시에는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대규모 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했다.

감사위원회도 의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감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자치감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사무기구의 조직·정원 등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해 특별시 규모와 인구에 맞춘 의회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광주시의회는 전남도의회는 이처럼 우선 합의된 내용을 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

의원 정수 등과 같이 이전이 있는 내용은 추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

안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논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시·도민 모두가 만족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가 거대 행정기관이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도 마련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여수산단 대개조·균형발전” 공감대 형성

강기정 광주시장, 여수서 도민과 상생토크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광주전남 통합여수시민과의 상생토크’를 개최, 전남도민과 소통을 이어갔다.

이번 행사는 전남지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도민과의 상생토크’ 두 번째 일정으로, 전남 시·군민을 찾아 통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정현구 여수부시장, 여수시민과 산업계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간 역할과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날 행사에서 제시된 여수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통합 전략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도민과의 상생토크’는 2월 5일 영광군, 2월 12일 고흥군 등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6·3지방 선거 앞두고 출판기념회 잇따라



강성희 목포시장 출마예정자가 1일 목포 에메랄드웨딩홀 2층에서 ‘목포야 사랑해’ 출판기념회를 갖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박종원 전남도의원이 지난달 31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저서 ‘박종원의 담양사랑과 꿈’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이 지난달 31일 나주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저서 ‘이재태의 오직 시민만 봄’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목포야 사랑해’ 강성희 목포시장 선거 출마 에너지 대전환 중심 미래도시 구상 제시

강성희 목포시장 출마예정자가 1일 목포 에메랄드웨딩홀 2층에서 ‘목포야 사랑해’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박지원·김원이·서미화·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명현관·해남군수·박우량 전 신안군수 등이 참석해 자리리를 빛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정책부의장이 스물아홉의 나이에 정치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장에서 보고 배우며 지나온 시간들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결과물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저서 ‘강성희의 목포야 사랑해 (MOKPOLOVE)’에는 개인의 회고를 넘어, 목포라는 도시와 함께 걸어온 시간에 대한 애정과 성찰이 담겼다.

강 목포시장 출마예정자는 이 책에서 완성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시민과 함께 묻고, 목포의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강 목포시장 출마예정자는 “이 책은 개인의 기록이자 목포라는 도시와 함께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라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더 뜻깊은 시간을 만드는 거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최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강성희 목포시장 출마예정자는 최근 까지 전남도의원을 지냈다.

그는 “목포는 더 이상 관리로 베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에너지 대전환을 축으로 한 제2의 개항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3@

“광주전남통합 속 담양의 길 제시할 것” 박종원 출판기념회 대성황…군수 출마 행보 본격화

박종원 전남도의원(담양1)이 지난달 31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저서 ‘박종원의 담양사랑과 꿈’ 출판기념회를 열고 담양군수 선거 출마를 향한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담양군민과 지역자체 3000여명이 몰리며 행사는 대단히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원, 장병영 담양군의회 의장, 최형식 전 담양군수 등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문정복·황명선 국회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양부남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신수정 광주시의장 등이 축하 영상도 상영됐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담양의 위상을 분명히 세우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박 의원이 부친 박인석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장면도 연출돼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원, 장병영 담양군의회 의장, 최형식 전 담양군수 등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문정복·황명선 국회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양부남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신수정 광주시의장 등이 축하 영상도 상영됐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담양의 위상을 분명히 세우고,

‘시민만 보는 정치’…나주의 봄 열겠다

이재태, 나주시장 출마 공식화…5000명 운집

이재태 전남도의원이 지난달 31일 나주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저서

‘이재태의 오직 시민만 봄’ 출판기념회를 전시지에 미치며 나주시장 출마를 공식화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와 5000여명의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이 의원의 출판을 축하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은 “정치는 사람을 향해야하고 오직 시민만 보겠다”고 밝히며 “나주를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부친이 눈을 가지고 어머니가 밭을 일구던 삶의 터전’이자 ‘자신의 삶 그 자체’로 정의했다. 그는 “오직 시민만 보는 순간 나주의 새로운 봄이 시작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정치는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나주=조희천 기자 pose007@